

2026

ACTS NEWS

“Evangelization of Asia and the World”

Vol.
66



ZOOM IN ACTS

- 제47회 ACTS 선교대회 개최
- 2025년 ACTS Bible Academy
- 2025 가을학기 신앙수련회
- 제19차 ACTS신학포럼 개최
- 하이브리드 강의실 조성

AIGS 소식

- 2025년 가을 AIGS 신앙수련회
-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
AIGS 학생 커플 결혼식

한국어학당 소식

- 3, 4기 베트남 학생 입국
- 경복궁, 인사동 문화 체험

신간소식

- ACTS신학저널 65집
- ACTS신학저널 66집
- 목상을 다시 생각하다

ACTS

ACTS
UNIVERSITY



아신대학교
홈페이지 바로가기

ACTS NEWS

2026년 Vol.66

발행일 2026년 3월 3일

발행인 정홍열

발행처 아신대학교 기획처(Tel. 031-770-7802)

주소 12508 경기도 양평군 육천면 경강로 1276

디자인 이은컴퍼니(Tel. 02-2231-6402)



ACTS

Content

- 03 총장 메시지
- 04 ZOOM IN ACTS
- 12 AIGS NEWS
- 16 한국어학당
- 19 신간 소식
- 20 ACTS 후원 소식
- 22 English Summary



아신대학교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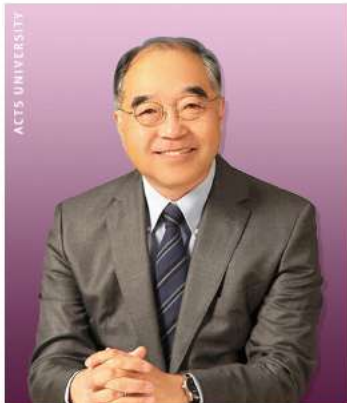
신선한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보내실 분은 이메일로 연락해 주십시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이메일 haru7@acts.ac.kr

홈페이지 www.acts.ac.kr

총장 메시지

President's Message



ACTS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주전 540-480년에 활동했던 헬라철학자 헤라클레토스는 “만물은 흐른다” 혹은 “만물은 변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당시까지 변하지 않는 것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했던 헬라철학에 새로운 도전을 주는 명제였습니다. 최근의 인류사회는 산업화 이후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더니 정보화 사회를 거쳐 이제는 트랜스 휴먼, AI 사회, 피지컬 AI, 휴메노이드 사회 등 그 변화하는 속도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생애주기가 6개월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술이 등장해도 그것이 신기술로 인정받는 기간이 6개월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술개발의 무한한 경쟁사회가 정글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발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교육환경도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변화에 대응하면서 변화해 나가야만 하는 현실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성경도 만물이 변화한다고 가르치지만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홀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만이 아니라 만물을 변화시키시되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계21:5). 모든 인류의 도전과 발전이 결국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피 본 족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전9:1).

저는 얼마전까지 급변하는 교육환경을 대하면서 심각한 두려움을 가졌었습니다. 우리학교가 이런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과연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심히 염려되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갈 때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모든 변화 뒤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보화 사회를 지나서 포스트 휴먼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종전의 교육방식만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까지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나가야만 생존가능한 교육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주의 신학과 선교 중심의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일들을 찾아서 대응해 나가는 길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마11:12)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바꾸고 간직해야 할 것은 더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을 잘 분별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선택과 집중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결정해서 이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학교가 오히려 더 든든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가만히 있으면 단지 위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아니고서는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없는 극한 상황 속에서 과감하게 변화를 선택하게 되면 그 위기가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신대는 지금 제 2의 건학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신대의 전통을 딛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이 위기를 잘 넘기고 오히려 잘 대응해 나가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지난 50여 년 동안 수많은 위기를 넘겨 왔습니다. 종전에 우리가 겪었던 위기보다 지금의 어려움이 더 생존을 위협하는 더 근본적인 위기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도 결국은 우리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액츠의 시작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에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니라”(계21:5). 아멘!

아신대학교 총장 정 홍 열

ZOOM IN ACTS

ACTS는 진리와 열정을 품고,
세계 곳곳에 다양한 빛깔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01

이주민 선교를 주제로 제47회 ACTS 선교대회 개최

“땅끝에서 온 이웃”

본교는 ‘땅끝에서 온 이웃’을 주제로 지난 10월 29일(수)부터 30일(목)까지 양일간 양평 캠퍼스에서 제47회 ACTS 선교대회를 개최했다.

1976년 제1회 ‘아세아선교의 날’을 시작으로 올해 47회를 맞이한 ACTS 선교대회는, 약 250만 명의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한국 사회가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음을 인식하고, 한국 교회와 신학교가 이주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번 선교대회는 ‘이주민 선교’를 중심 주제로 진행됐다.

첫째 날인 29일에는 국제복음선교회, CCC GSM 해외선교팀, GMP 개척선교회, HOPE선교회, OMF, WEC 국제선교회, 비전선교단, 한국 SIM국제선교회, 한국오엠, ACTS선교국 등 10개 선교단체가 본관 잔디마당에 선교부스를 설치해 각 단체의 사역을 소개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접하며 선교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람을 세우고 세계를 품는 대학,
아신대학교



둘째 날 오전에는 선교헌신예배가 드려졌다. 예배는 아신대 국제교육원 외국인 학생들의 각국 국기 입장을 시작으로, 신대원 동문회 부회장 안재홍 목사의 기도, 외국인 학생 특송, 한상화 교수의 헌금기도, 아신대 타문화권사역자회 대표 이재명 선교사의 축사, 한발장로교회 장로이자 (주)예람 대표이사인 강사돈 장로의 명예박사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교는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 상임대표 정노화 선교사가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을 본문으로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정 선교사는 아신대가 이주민 선교를 주제로 선교대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의미를 전하며, 이주민 선교는 더 이상 선교의 주변부가 아니라 이 시대 한국 교회에 맡겨진 중요한 선교적 사명임을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는 이주민 선교를 주제로 한 선교포럼이 진행됐다. 이명석 교수의 사회로 열린 포럼에서 전철한 선교사(한국외향선교회 상임회장)는 「국내 이주민 선교를 통한 세계선교」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남양규 목사(한국선교회 대표)는 「서울네이션즈교회의 이주민 목회와 외국인 신학생 사역」을 주제로 발표했다. 두 발표자는 오랜 이주민 사역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이주민 선교의 흐름과 향후 방향을 제시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정홍열 총장은 “이제 우리 곁에는 다른 문화와 종교, 가치관을 가진 이웃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며 “이번 ACTS 선교대회를 통해 이주민을 한 대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들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02

ACTS 신학연구소, 제19차 신학포럼 개최

“AI 시대와 교회미래”

본교 부설 ACTS 신학연구소(소장 허주 박사)는 지난 10월 20일 본교 대강당에서 제19차 ACTS 신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 사회로 접어드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회와 목회자들이 AI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할 것인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는 최윤식 박사(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장)가 맡아 「AI 시대, 한국 교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최 박사는 AI를 포함한 기술 문명 역시 하나님께 근원을 둔 세계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목회와 선교 현장에서 AI를 적극적이면서도 책임 있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무비판적 신뢰와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윤리적 위험성에 대해서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안경승 교수(목회상담학)는 인격적 만남과 공동체적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김한성 교수(선교학)는 선교 현장에서



AI 활용의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제시했다. 허주 교수는 종합 발언을 통해 AI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신학적 성찰과 책임 있는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주 교수(ACTS 신학연구소장)는 종합 발언을 통해 “AI의 잠재력을 인정하되, 인공지능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고 건강한 활용을 위한 지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AI 기술 확산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윤리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포럼은 마무리 되었다.

ACTS 신학포럼은 아신대학교 신학연구소가 매 학기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학술 행사로, 동시대 신학 이슈와 과제들을 함께 성찰하고 토론하는 장이다. 제20차 ACTS 신학포럼은 내년 5월, 양평 아신대학교 강당에서 「복음과 다중심적 선교」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03

미국 뉴멕시코 나바호 원주민 단기선교 4년 연속 진행

현장 체험을 통해 세계선교의
비전을 배우고 확장하다

본교는 2022년부터 미국 뉴멕시코주 나바호(Navajo) 원주민 지역을 대상으로 단기선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USACTS’라는 팀명으로 운영되는 본교 단기선교는 2025년을 기준으로 네 번째를 맞이하였으며, 올해에는 학부 및 신학대학원 재학생 12명(인솔자 포함)이 8월 8일부터 24일까지 선교 사역에 참여하였다. 이번 선교는 뉴멕시코주 나바호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사역 중인 Christian Vision Academy(대표 이덕재 선교사)와 협력하여 이루어졌다.

선교팀은 사역에 앞서 영어 찬양과 기도, 복음 전도를 위한 영어 회화 훈련과 태권도 드라마, 워십 댄스 등을 준비하였으며, 릴레이 금식기도와 기도편지 작성, 사역 준비 모금 활동을 통해 영적·실천적 준비를 갖추었다. 사역 기간 동안에는 나바호 원주민 가정 방문, 지역 공원 찬양 버스킹, 공연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지역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생수 나눔과 기도 사역을 진행하였다.

사역 이후에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랜드캐년과 세도나 지역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체험하고, 사역의 경험을 나누며 신앙과 진로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신대학교는 ‘아세아와 세계 복음화에 기여’라는 건학 이념 아래 ‘선교 지향적 글로벌 리더 양성’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으며, 단기선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선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세계선교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찬양·버스킹·공원 사역

지역 공원에서 찬양과 태권도 드라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단기선교팀



사역 현장 사진(가정 방문-기도)

나바호 원주민 가정을 방문해 복음을 전하고 중보기도 사역을 진행하는 단기선교팀



04

2025년 ACTS Bible Academy

동계·하계 두 차례에 걸쳐 진행



25년 ACTS Bible Academy가 동문, 재학생, 지역교회자들의 참석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2025년 ACTS Bible Academy 동계(1월 6일~10일)와 하계(6월 30일~7월 4일)로 두 차례 진행되었다. 앞서 진행된 동계 프로그램에는 메인 프로그램으로 조휘 교수의 “예레미야와 함께”와 원종천 명예교수의 “성화증진을 위한 교회사의 발자취: 역사신학적 관점”의 특강으로 구성되었으며 하계 프로그램에는 메인 프로그램으로 정성국 교수의 “로마서 선교적 읽기”와 김학봉 교수의 “삼위일체 신학과 설교”의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05

2025 가을학기 신앙수련회

신앙과 학업, 공동체 의식을 함께 다지는 뜻깊은 시간

2025학년도 가을학기 신앙수련회가 지난 9월 3일부터 5일까지 교내 채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수련회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다’라는 주제로, 토론토 밀알교회의 박형일 목사가 강사로 초청돼 말씀을 전했다.

첫날 개회예배에서는 “해 아래, 그리고 해 위”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학부생과 AIGS 원우들이 함께 은혜를 나눴다. 이어 장애인식 교육과 외국인 학생 상호 문화교육이 진행돼 공동체의 다양성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으며, 오후에는 신앙과 삶을 주제로 한 특강이 이어져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저녁집회에서는 “안 보이는데 보인다”라는 메시지가 전해졌다.

둘째 날에는 “불속에 들어가니 그분이 보인다”라는 설교와, 저녁집회에서는 “물 위를 걷는자”라는 말씀을 통해 믿음의 도전을 강조했다. 또한 인터넷 과의존 예방 교육과 아이스 브레이킹 프로그램, 다양한 특강과 기도회를 통해 공동체의 교제와 영적 성장이 더해졌다.

마지막 날에는 “영적 분별”의 제목으로 폐회예배가 드려졌으며, 예배 후 단체사진 촬영을 통해 수련회의 의미 있는 순간을 기록했다. 참가 학생들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신앙과 학업, 공동체 의식을 함께 다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06

손장환 학우, '나는 설교자다' 본선 대상 수상

아신대학교 설교 교육의 우수성과
차세대 목회자 양성 가능성 입증

본교 손장환 학생(신학 4학년)이 지난 11월 19일 칼빈대학교에서 개최된 차세대 설교자 발굴 프로젝트 '나는 설교자다' 본선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차세대 설교자로서의 탁월한 역량을 입증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개혁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설교자 발굴 프로그램으로, 칼빈대학교(총장 황건영) 주도로 대신대학교, 총신대학교, 아신대학교가 함께 참여했다. 아신대학교 대표로 출전한 손장환 학생은 설교의 신학적 깊이와 전달력, 현대적 적용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참가자 가운데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수상을 통해 아신대학교는 설교 교육의 우수성과 차세대 목회자 양성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칼빈대학교 대학원장 김덕현 교수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대회를 넘어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역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본선 설교들은 쇼츠 영상으로 제작돼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교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학생들의 설교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콘텐츠와 결합된 새로운 사역 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홍열 총장은 "손장환 학생의 대상 수상은 아신대학교가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학과 실천적 사역 교육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설교자를 양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07

국민은행 양평지점으로부터
발전기금 1천2백만원 기탁 받아

교육과 선교 사역을 위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동행

국민은행 양평지점(지점장 홍현미)에서 교육 및 연구 지원을 위한 발전기금 1천2백만원을 본교에 기탁했다. 정홍열 총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 온 국민은행에서 아신대학교에 귀한 발전기금을 전달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발전기금을 전달한 홍현미 지점장과 김영란 부지점장에게 학교의 교육 이념과 사역 비전을 소개하며, 이번 기금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 지도자를 세우는 아신대학교의 교육과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전기금 기탁은 지역사회와 대학이 협력해 미래 인재 양성과 글로벌 사역을 함께 세워가는 뜻깊은 사례로 평가된다.





08

CTS 창사 30주년 특집 '더 메시지', 아신대학교에서 촬영

청년 세대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캠퍼스 촬영 현장

CTS 기독교TV가 창사 30주년을 맞아 제작한 특집 프로그램 '더 메시지'가 지난 9월 22일(월), 본교 한철하 박사 기념공원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더 메시지'는 목회자와 찬양 사역자들이 지역 캠퍼스를 직접 찾아가 청년 세대의 삶에 복음의 분명한 해답을 전하고자 기획된 CTS 창사 30주년 기념 프로그램이다. 이번 촬영은 경기도 양평의 수려한 자연경관 전망을 자랑하는 본교 한철하 박사 기념공원에서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현장에는 강한별 찬양사역자(버스킹예배자), 김선교 선교사(다윗의 열쇠), 신재웅 목사(페이지처치)가 출연해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아신대학교 학생, 외국인 유학생들이 찬양집회에 함께 참여하며 캠퍼스 공동체가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CTS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각 지역 캠퍼스의 열린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청년 세대를 믿음 안에서 세워가고자 하는 비전을 담아냈다. 본교는 이러한 사역 비전에 동참하며 복음 전파의 현장이 되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아신대학교에서 촬영된 '더 메시지' 시즌4는 CTS 기독교TV 채널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방송과 유튜브, SNS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미디어 사역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09

'동문선교사를 찾아 떠나는 일본 비전트립' 진행

자신의 삶과 앞으로의 방향을 선교적 관점에서 돌아보는 계기

본교는 지난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동문선교사를 찾아 떠나는 일본 비전트립'을 진행했다.

이번 비전트립은 일본에서 사역 중인 신성일 동문 목사의 사역지를 방문해 선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이 선교적 비전과 자신의 진로를 깊이 성찰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었다. 특히 동문 선교사와의 만남을 통해 선교의 실재와 사역의 여정을 나누며, 선교를 보다 가까운 삶의 이야기로 느끼는 시간이 됐다.

참가 학생들은 신성일 동문 목사의 사역 현장을 중심으로 일본 선교의 현실과 과제를 배우고,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선교 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이를 통해 교실에서 배운 신학과 선교 이론이 선교 현장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이해하며, 자신의 삶과 앞으로의 방향을 선교적 관점에서 돌아보는 계기를 가졌다.



또한 일본 기독교 역사와 신앙의 흔적이 담긴 순교지 탐방, 지역 기독교 시설 방문,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복음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의 모습을 직접 경험했다. 이러한 일정은 학생들이 선교를 특별한 사역이 아닌, 일상 속에서 준비하고 꿈꿀 수 있는 비전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었다.

비전트립에 동행한 하태선 교수는 "이번 일본 비전트립은 동문 선교사의 삶과 사역을 가까이에서 접하며 학생들이 선교를 자신의 미래와 연결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며 "이 경험이 참가자들이 선교적 꿈을 키워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0

아신대 가을 축제

참여와 연합으로 캠퍼스를 물들이다

지난 10월 1일(수)부터 2일(목)까지 이틀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축제가 교내에서 진행되었다.

첫날인 10월 1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내 곳곳에서 활동부스와 음식부스가 운영되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분위기가 이어졌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를 즐기려는 학생들로 캠퍼스는 하루 종일 활기를 띠었다.

이어 오후 5시 30분부터는 채플실에서 ‘아신복면가왕’ 프로그램이 열렸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숨겨온 노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무대로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으며, 관객들의 응원과 박수 속에서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둘째 날인 10월 2일(목)에도 오전 9시부터 활동부스와 음식부스가 운영되며 축제의 열기를 이어갔다. 오후 4시 30분부터는 다락방에서 김학봉 교수의 북토크가 진행돼, 학생들에게 사유와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며 깊은 울림을 전했다.

행사의 마무리는 오후 6시 30분부터 열린 찬양 페스티벌이 장식했다. 찬양 페스티벌은 AIGS, 학부, 대학원이 함께 연합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음악과 예배를 통해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지며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축제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마련돼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학내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참여한 학생들은 “함께 웃고 노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람을 세우고
세계를 품는 대학,
아신대학교

11

선교영어학과 05학번 김영래 동문
2025년 한국개혁신학회 제7회
‘올해의 신학자상’ 수상

동문 학자의 성과로 확인된 아신대학교 신학 교육의 결실



김영래 동문

본교 김영래 동문(선영 05)이 한국개혁신학회 제7회 ‘올해의 신학자상’ 수상자로 이신열 고신대학교 교수와 함께 선정되었다.

‘올해의 신학자상’은 2019년부터 한국개혁신학회가 기독교학술원, 살롬나비와 공동으로 주관해 매년 수여해 오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개혁주의학술원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우병훈(고신대), 이상웅(총신대), 백충현(장신대), 조영호·이은선(안양대), 한상화(아신대), 박찬호·안수강(백석대) 교수 등이 수상한 바 있다.

1986년생인 김영래 교수는 본교를 졸업한 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거쳐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석사(M.Div.) 과정을 이수했다. 이후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적 미학」 연구로 철학박사(Ph.D.)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한영대학교 객원교수와 아신대학교 강사로 재직 중이며, GSI선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Divine Beauty Revealed』가 있으며, 『조나단 에드워즈의 아름다움의 신학』 출간을 앞두고 있는 등, 복음주의 신학의 전통 속에서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신학과, '제4회 고전강독캠프' 개최

신앙과 학업, 공동체 의식을
함께 다질 수 있는 뜻깊은 시간

신학과에서는 지난 12월 29일(월)부터 30일(화)까지 1박 2일간 경기도 가평 오론빌리지에서 '2025학년도 신학과 고전강독캠프'를 진행했다.

고전강독캠프는 방학 기간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신학 고전을 깊이 있게 읽고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다. 매년 교수와 학생이 함께 고전을 읽으며 신학의 기초를 다지고, 신앙과 삶을 연결하는 학문적 성찰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제4회 캠프의 강독 도서는 마르틴 부셔의 『삶, 나 아닌 남을 위하여』로, 기독교 윤리의 핵심인 이웃 사랑과 공동체적 책임을 다룬 작품이다. 신학과는 앞서 토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감정론』, 디트리히 본회퍼의 『성도의 공동생활』 등을 강독하며 고전 읽기의 전통을 이어왔다.

이번 캠프는 산본교회(담임목사 이상갑)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주 강독자인 한상화 교수의 안내 아래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책 전체를 읽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여러 교수들과 소그룹으로 모여 질문과 피드백을 나누며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신학과 학과장 전희준 교수는 “고전강독캠프는 학생들이 혼자서는 읽기 어려운 신학 고전을 교수들과 함께 읽으며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토론을 통해 신학의 기초를 더욱 탄탄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 학생들 역시 공동체와 함께 고전을 읽으며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신대학교 신학과는 앞으로도 고전강독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신학의 뿌리를 단단히 세우고, 신앙과 삶을 잇는 배움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13

2026학년도 신입생 대상 '해외 문화 탐방 프로그램' 전액 장학 지원

글로벌 현장 체험을 통해 전공·진로 탐색 기회 제공

본교는 2026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해외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전액 장학금으로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신대가 추구하는 국제적·미래지향적 교육 비전을 바탕으로 기획되었으며, 신입생들이 해외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글로벌 감각을 함양하고 전공 및 진로를 보다 깊이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2026학년도 신입생들은 1학기 동안 해외 문화 탐방과 연계된 교과목을 통해 사전 교육을 이수한 뒤, 이를 토대로 실제 해외 현장에서 학습 내용을 체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단순한 해외 방문을 넘어 학문적 통찰과 인격적 성장을 함께 경험할 것으로 기대된다.

14

24학번 김동석·성은주 학생 식당에 식판 기증

배움을 삶으로 실천한 학생들의 따뜻한 나눔



기독교상담학과 24학번 김동석, 성은주 학생이 최근 교내 식당에 식판과 국그릇 300개를 기증했다. 두 학생은 조용한 나눔을 원했으나, 정홍열 총장의 뜻으로 간단한 전달식이 마련됐으며, 총장은 “신학생으로서 배움을 삶으로 실천한 귀한 모습”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이번 기증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나눔을 통해 학교 공동체에 따뜻한 울림을 더한 의미 있는 사례가 됐다.

15

94학번 동문 후원으로 ‘하이브리드 강의실’ 조성

현장 수업과 동일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첨단 교육 공간

본교 94학번 졸업동문의 후원으로 ‘하이브리드 강의실’이 추가로 조성되고, 2025학년도 2학기부터 해당 강의실의 운영이 시작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하이브리드 강의실은 해외 및 원거리 거주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더라도 현장 수업과 동일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첨단 교육 공간이다. 고화질 카메라, 자동 음성 추적 마이크, 대형 전자칠판 등 최신 교육 장비를 도입해 교수자와 학생 간의 실시간 상호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해당 강의실에서는 일반대학원 신학박사(Th.D.), 성경강해학(Th.M.), 신학(M.A.) 과정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현장에 직접 참석한 것처럼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어 몰입감이 높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수업 종료 후에는 강의가 자동으로 녹화되어 다시 시청할 수 있어 복습과 학습 보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본교는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의 학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AIGS MISSION NEWS

상반기

NEWS 1

2025년 가을 AIGS(국제교육원) 신앙수련회

2025년 9월 3일(수)부터 5일(금)까지 신앙수련회가 개최되었다. 신앙수련회 강사로는 제임스 강 목사가(Rev. James Kang-McCann) 초청되었으며, AIGS 역사상 처음으로 동문이 신앙수련회 주강사로 나섰다.

주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다: 하이브리드 세계 속 디아스포라 정체성과 사역”(고린도전서 9장 22절)으로, 제임스 강 목사는 말씀 묵상, 간증, 기도, 선교적 성찰을 통해 학생들을 이끌며 공동체에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 갔다.



<신앙수련회 찬양과 기도하는 모습>

NEWS 2

2026년 2월, 목회학석사 과정 졸업 Telemnos Gagebo, 에티오피아

ACTS에서 다듬어진 나의 비전과 선교적 사명

Telemnos Gagebo 학생 졸업 소감

저는 에티오피아 남부 지역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여러 해 동안 목회 현장에서 전도와 제자훈련, 교회 리더십 사역을 감당해 왔지만, **사역을 지속할수록 더 깊은 신학적 성찰과 선교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2023년 3월, 아신대학교 (ACTS University)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ACTS에서의 시간은 제 삶과 사역에 있어 분명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헌신적인 교수님들의 가르침과 선교 중심의 교육과정, **외국인 학생 공동체와 기도의 영성이 살아 있는 캠퍼스 환경 속에서 저는 신학이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참여하기 위한 살아 있는 도구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대한 ACTS의 강조는 제 신학적 시야와 선교적 관점을 새롭게 형성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20절의 말씀은 더 이상 머리로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 삶을 이끄는 실제적인 비전이 되었습니다.

ACTS에서의 배움은 저의 소명 또한 더욱 분명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복음이 아직 충분히 전해지지 않은 지역과 소외된 공동체를 향해, 에티오피아의 다음 세대 청년들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세우는 것이 제게 주신 사명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에티오피아 청년들을 깨워 선교로 일으키는 사역(Rising or Awake Ethiopian Youths for Mission)'이라는 사역 비전을 정립하게 되었고, 이 비전은 동아프리카 뿔 지역(Horn of East Africa)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 목회자-지도자-선교사 양성, 복음 전도와 선교사 파송, 그리고 교회 개척과 제자훈련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남부 에티오피아와 케냐 북부 지역에서 진행된 전도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를 경험하였으며, 동시에 교회 개척과 지속적인 제자훈련의 중요성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ACTS에서 저는 총체적 선교에 대한 이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영혼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삶의 전 영역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저의 비전에는 복음 전도와 지도자 훈련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적 사명 또한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과 창조 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선교적 실천이라 믿습니다.

ACTS의 리더십과 교수진, 직원들, 그리고 함께 공부한 모든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ACTS를 통해 앞으로도 세계 선교를 위한 귀한 일꾼들을 계속해서 세워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ACTS에서의 배움은 제 사명과 비전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었습니다.

신학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삶을 ACTS에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다듬어진 비전을 품고, 에티오피아와 동아프리카 뿔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2025년 8월 18일 ~ 19일 여름 산상 기도 연합대회, 에티오피아>



<Telemnos Gagebo학생이 사무하는 교회의 예배모습>

NEWS 3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 AIGS 학생 커플 결혼식

AIGS 선교 공동체 안에서 맺어진 아름다운 결실이 탄생했다. 서로 다른 학위 과정을 밟고 있던 한국인 학생과 필리핀인 학생이 AIGS 공동체 안에서 만나, 선교라는 공통된 비전과 사명을 나누며 사랑으로 발전한 끝에, 지난 가을 결혼의 결실을 맺었다.

이 커플은 학업과 신앙생활을 함께 하며, 다문화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됨의 은혜를 경험했다. 비록 국적은 다르지만, 선교지에서의 헌신과 예배의 삶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키워갔다.

결혼식은 아신대학교 강당에서 소박하지만 은혜롭게 열렸으며, 이날 주례는 정홍열 총장이 말아 학생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정 총장은 말씀을 통해 “두 사람이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그 자체로 복음의 증거”라며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양가 부모님은 각각 이집트에서 선교 사역 중인 한국 측 가족과, 필리핀에서 목회 중인 신랑 측 가족으로, 사역지 일정상 결혼식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날 모인 학생과 모든 참석자들은 마치 한 가족처럼 함께 기뻐하며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이날의 결혼식은 단순한 결혼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국경과 문화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이 살아있는 증거였으며, 선교적 소명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사랑의 동역자가 태어난 순간이었다.



Wedding of
an AIGS Student Couple



세계적 선교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David Hirome

저는 6년에 걸친 박사과정을 마치고 졸업하게 된 것을 하나님과 ACTS, 그리고 저를 후원해 주신 한국 교회들께 깊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끝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서 학업을 마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넉넉한 장학금으로 학업을 지원해 준 ACTS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장학금이 없었다면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울러 교수님, 직원, 그리고 기숙사·식당·예배 공간에서 섬겨주신 모든 지원 인력, 나아가 AIGS 공동체의 모든 학생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함께 드러내며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회적·영적·학문적으로 큰 성장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 나라의 친구들을 사귀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깊이 교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23년 AIGS 학생회 재무로 섬기며 ACTS에 다시 환원하는 기회를 가졌고, 동시에 귀중한 다문화 리더십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6년간 조국을 떠나 살아오며 그리스도께 대한 의존은 더욱 깊어졌고, 다양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다양한 방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제 학술적 글쓰기 역량을 키워 주신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지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ACTS에서 처음 수강했던 매튜 건(Matthew Gunn) 교수님의 수업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 김(Daniel Kim) 교수님은 저의 첫 학술 논문 출판을 친절히 지도해 주셨고, 이명석 교수님은 KIAMS를 통한 학문적 노출과 국제 학술대회 참여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국제 학술지 논문 집필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김한성 교수님은 국제 선교학 분야의 주요 학술지 세 곳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제가 우간다에 머물렀다면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 확신하며, 이에 ACTS와 한국 교회들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아내 에스더는 저보다 먼저 ACTS에서 수학한 동문으로서, 지난 6년간 제 학업 여정 내내 변함없는 지지와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합당하게 사용해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1. Missiology : An International Review

The Title : 「미국의 아프리카 선교사들
(African Missionaries in the US)」

2.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 (IBMR)

The Title : 「한국을 기반으로 한 아프리카 목회자들의 온라인 사역」
African Pastors' Virtual Ministry from South Korea

3. Transformation : An International Journal of Holistic Mission Studies

The Title : 「우간다 성공회에서의 모라토리엄 논쟁」
The Moratorium Debate in the Anglican Church of Uganda
*김한성 교수 제2저자로 공동 집필



<2023년 6월, 예일-에딘버러 선교 컨퍼런스 / 장소 : 영국 에딘버러대학교>



<Korea Global Mission Leaders Forum참여
(좌)부터, 본교 선교학 김한성 교수, David Hirome,
Andrew David(발제자,우간다), 그의 아내 Esther Okiror>

한국어학당

아신대학교 어학당에 오시면
여러분의 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줄 확신합니다.



한국어학당 3기 베트남 학생 입국



지난 9월, 한국어학당 3기 베트남 학생 7명이 입국해 어학당에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다.

학생들은 입국 직후 아신대학교로 이동해 한국어 레벨테스트를 치렀다. 레벨테스트는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에 맞는 반 배정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시험 결과에 따라 수준별 반 편성이 이루어졌다.

이후 찐리미엔 선생님의 진행으로 학교생활 오리엔테이션이 이어졌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한국에서의 생활 적응에 필요한 전반적인 정보가 안내됐으며, 특히 학교 규칙과 생활관 이용 방법에 대한 설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함께 나누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신대학교는 앞으로도 한국어학당 3기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Korean Language Institute

2025년 12월 5일(금), 아신대학교 한국어학당 베트남 학생 4기 7명이 한국에 도착하며 본격적인 학업 여정을 시작했다.

학생들은 입국 직후 한국에서의 첫 식사로 짜장밥을 맛보며 새로운 생활의 출발을 알렸다. 이후 한국어학당은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레벨테스트를 실시했으며, 시험 결과에 따라 향후 수업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이어 기숙사 배정과 함께 생활 규칙 및 기본 예절 교육이 진행됐다. 담당 직원들은 학생들이 낯선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 전반에 대해 세심하게 안내하며 정착을 도왔다.

또한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대학원 원우가 패딩점퍼를 기부하는 뜻깊은 나눔이 이어졌다. 갑작스러운 추위 속에서 학생들은 기부받은 패딩점퍼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국어학당은 앞으로도 베트남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 전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학생들 역시 새로운 환경에서의 기대와 설렘을 나눴다. 이번 입국은 2025년 한국어학당 국제 학생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어학당 베트남 4기 학생 입국



베트남 한국어학당, 한국법령 교육 및 추석맞이 전통놀이 체험 진행



지난 10월 2일(목) 아신대학교 한국어학당 학생들이 한국법령 교육과 추석맞이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날 오전에는 외부 강사를 초청해 한국법령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의 기본 법규와 일상생활 속 규범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실제 생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강의 중 적극적으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높은 관심과 참여도를 보였다.

교육 후에는 본교 다문화교육복지대학원 주관으로 추석 명절을 맞아 윷놀이 체험 행사가 열렸다. 베트남 한국어학당 학생들과 대학원 관계자들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명절 특유의 따뜻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며 현장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다문화교육복지대학원은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며 의미를 더했다. 학생들은 “한국의 명절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 아신대학교는 앞으로도 외국인 학생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어학당은 2025년 10월 30일, 베트남 학생 50명과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 명소인 경복궁과 인사동을 방문하는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전통 건축미와 깊은 역사를 간직한 경복궁을 둘러보며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넓혔으며, 고궁의 가을 정취 속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점심 식사로는 한국을 대표하는 보양식인 삼계탕이 제공돼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식사 후에는 인사동 거리로 이동해 전통 공예품과 기념품을 둘러보며 자유롭게 시간을 보냈고, 전통 간식을 맛보는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이번 문화탐방은 유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한국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참가한 학생들은 “좋은 추억이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신대학교는 앞으로도 유학생들의 한국 문화 이해와 안정적인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어학당, 베트남 유학생과 경복궁·인사동 문화 체험 진행

Evangelization of
Asia and the World



한국어학당 특별교류 행사

지난 9월, 본교 다락방에서 베트남 한국어학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교류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대학원 황태영, 안허우 원우가 주관해 진행됐다.

두 원우는 한국 생활에 적응 중인 유학생들을 돕기 위해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한국의 문화 예절을 쉽고 친근하게 설명하며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마련해 현장 분위기를 한층 밝고 활기차게 이끌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팀을 이루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고, 교류의 즐거움을 함께 나눴다. 행사 후 학생은 “한국 생활이 훨씬 자신감 있게 느껴진다”고 소감을 전했다.

황태영, 안허우 원우는 “앞으로도 유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 행사는 베트남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어학당, 베트남 유학생 대상 독감 예방접종 실시



아신대학교 한국어학당은 12월 11일 베트남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이번 예방접종은 유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인 유학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베트남 친구들 유학원의 협조와 더플러스 병원의 후원으로 경기도 광주에서 진행됐다.

사전 신청을 통해 접종을 희망한 학생 42명이 참여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완료했으며, 의료진은 접종 전·후 안내와 건강 상태 확인 등 안전한 절차를 제공했다.

한국어학당은 “학생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학업과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참여 학생들은 무료로 제공된 의료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예방접종은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학생 복지를 강화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어학당 베트남 학생 위한 특별 예배 열려

2025년 10월 21일(화), 아신대학교 대학원 황태영, 안허우 원수가 한국어학당 베트남 학생들을 위해 특별 예배를 인도했다. 이번 예배는 유학생들의 신앙과 학업을 함께 격려하고, 한국 생활 속에서 영적·정서적 지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배 중에는 조휘 원장이 학생들에게 직접 공부에 대한 조언과 바람직한 학문적 태도에 대해 전하며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나눴다. 특히 자신의 미국 유학 경험을 소개하며, 낯선 환경 속에서도 도전과 인내로 성장해 온 과정을 들려줘 학생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어 이수인 교수가 종교문화콘텐츠학과와 연계한 수업 일정과 장학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며, 유학생들이 향후 학업 계획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이번 특별 예배는 베트남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보다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학업과 신앙을 균형 있게 성장시킬 수 있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한국어학당에서 수학 중인 베트남 학생들이 2025년 12월 9일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에서는 대학원 원우들이 준비한 캐럴을 함께 부르며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참석자들은 찬양을 통해 성탄의 기쁨을 나눴다. 이어 한국어학당 총장은 단상에 올라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와 희망’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올해 배운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학생들의 삶에 축복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부총장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는 모습이 사랑과 화합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학생들은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박수로 화답했다.

예배 후에는 다시 캐럴을 부르며 기념사진 촬영과 담소의 시간을 가졌고, 학생들은 한국에서의 학업과 연말을 맞이한 소망을 나누며 따뜻한 교제를 이어갔다.

이번 성탄절 예배는 한국어학당 학생들이 학업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정서적·영적 유대감을 더욱 깊이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어학당 베트남 유학생, 성탄절 예배 드려



신간소식

좋은 책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달의 신간도서를 소개합니다.



ACTS 단행본



ACTS신학저널 65집

기고자

Lee, Cha Hee, Vemagiri Jeevan Prakash Kumar, Lee, Young Min & Kim, Bo Hye, Lee, Chang Woo, Jeon, Hee Joon, Sumi, Vikijo, Park, Seung Chan, Ham, Young Ju, Choi, Seong Hun, Yoo, Hae Seok



ACTS 출판부

해당 도서의 구입을 원하시면 아신대학교 출판부로 연락주세요.
press@acts.ac.kr 031-770-7746

ACTS 단행본



ACTS신학저널 66집

기고자

Aldo Sheeba Lella, 김홍일, Martin Minho Choi, 이재형, 유지윤, 손신, 이미경, 권성호, 김옥기, 안점식, 장동진

ACTS 단행본



묵상을 다시 생각하다

-18인의 시선으로 되짚는 묵상의 본질

저자

정성국 외 17인 공저

ACTS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름 (2025년 7월~12월)

생활관 건축 후원

고미선, 김경진, 김명순, 김재진, 김정호, 김진화, 김현아, 노의수, 류승희, 박영진, 손하영, 윤성덕, 이명기, 조상식, 조지현, 하태선, 홍미란

ACTS 발전기금 후원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주)예람, 85학번동문일동, KB 국민양평지점, 과천교회, 권혜령, 김미진, 김선자, 김주식, 높은뜻 광성교회, 대구칠곡교회, 덕수교회, 문막운수(주), 박경민, 박우영, 서남지회, 손신, 송동운, 순복음대구교회, 신미옥, 안동교회/황영태 목사, 에스겔선교회, 엘엔피코스메틱(주), 염천교회, 영암교회, 온누리교회, 우심화, 은혜샘물교회, 이순규, 이한교회, 익명 후원자(D.Min.38기), 일반대학원영성신학과, 일산한사랑교회, 장옥란, 장정애, 정성국, 정홍열, 조암제일교회, (유)청솔환경, 하정길, 하태선, 한상화, 향동성광침례교회, 홍지희

각국선교연구원/개척 후원

(주)아이니웨딩네트웍스, (주)예람, 갈릴리교회, 강성곤, 김신아, 김용상, 김태훈(김현진), 김화영, 대구복성교회, 대흥교회, 덕수교회(경기), 목동중앙교회, 박정순, 상도중앙교회, 서부교회, 세종중부교회, 송전교회, 수영로교회, 수표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우리네교회, 안디옥열방교회, 영락교회제2여전교회, 유기홍, 유라시아선교연구원, 윤정환, 은좌교회, 은혜교회, 이점화, 이혜림, 임마누엘교회, 장예림, 장완익교수후원회, 정영신, 천안반석교회, 충신교회, 한강중앙교회

외국인학생 장학 후원

(사)국제민간교류협의회, (사)한국성서유니온, (사)한국여성복음봉사단, (재)비오스국제장학재단, (재)서편탐, (재)한국복음선교회, (재)혜송원, (주)예람, (주)태동씨앤에스, Cubillan Rowena Jastine, Esther Pandi Lepcha, GFM(Global Fraternal Mission), GMI은혜교회, Hongwei Sun, IM선교회, Kot Phanith, Lohit Naidu Paluri, Rufus Beera, The Global Church(아름다운우리교회), 강경희, 고효자, 과천교회, 구미상모교회, 권대기, 금곡교회, 김명순, 김은정, 김진화, 김태훈, 김형준, 김홍재, 남*문, 대흥종합공구, 동부광성교회, 루디아선교회, 만방국제학교(합창단), 명업교회, 모새골공동체교회, 문호교회, 바실선교회(주안장로교회), 박영순, 방이교회, 베들레헴교회, 사단법인 누가, 사회복지법인 여수애양병원, 서광교회, 서부교회, 서울노회 100주년기념장학재단, 서울영동교회, 선교대회헌금, 선두교회, 성지교회, 수영로교회, 수원성교회, 신은정, 십대들의 친구, 아가페교회, 안산온누리M센터, 안상호, 양선영, 연희교회, 염천교회, 영락교회소망장학회, 영락교회권사회, 예담교회, 예수기념교회, 오빈교회, 오산제일교회, 우심화, 우혜현, 윤국일, 윤성덕, 윤유원, 윤정선교회, 윤현준, 은천교회, 은평교회, 이명석, 이통형, 이한영, 이호진, 이효숙, 임식근, 전주현암교회, 정미화, 정우철, 정효숙, 조미라, 조우현, 조휘, 주만교회, 지반, 차미영, 천호제일감리교회, 청운농협농기계센터(덕성), 티케이씨(TKC), 하나선교회, 하진용,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 한국제자훈련원채플, 한진혁, 할렐루야교회, 허주, 호미해





ACTS 발전기금 후원계좌

국민은행 220-01-0329-818
(예금주 : 아신대학교)

ACTS Sponsorship News

대학/대학원 장학 후원

(사)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주)우보프로젝, 권영현, 김경은, 김맹준, 김윤자, 김은정, 김한성, 높은뜻광성교회, 미래를사는교회, 사랑빛·상담소&교육연구소(임신애), 사랑한의원(박수원), 상담대학원위원회, 상심리교회(상심교회), 아이빛교회, 안해근, 영락교회 실천장학회, 영락교회권사회, 윤만석, 이사야(신학과02학번), 전예영, 정지웅, 학부 90학번 아세아학과&신학과 동문

신학연구소

구미상모교회, 남양주충신교회, 이승련

ACTS 10만명기도·후원운동

강갑구, 강성경, 경기도교육청등록대안교육기관릭스쿨, 고지은, 김기천, 김동일, 김동현, 김용환(김경민), 김정미, 김종일, 김종숙, 김지원, 김혜미, 노익수, 박명기, 박영길/자유와동행교회, 박영숙, 박지현, 박홍구, 백명진, 백승하, 손신, 손영복, 손하영, 송안현, 신미옥, 심재학, 안경승, 양예진, 원성아(뇌과학센터), 위현숙, 유서원, 유용석, 육상근, 윤성덕, 이광직, 이우형, 이정남, 이정순, 인유진, 정미현, 정영일, 정홍열, 제자교회, 조형우, 조휘, 채광석, 채봉준, 천재욱, 천지혁, 최권능, 최동욱, 표영선, 허주, 홍성장, 황선미, 황순희



ENGLISH SUMMARY



2025 Fall AIGS Spiritual Retreat

The 2025 Fall Spiritual Retreat of the AIGS was held from Sep. 3rd(Wednesday) to Sep. 5th(Friday). This year's retreat marked a historic milestone as Rev. James Kang-McCann was invited as the guest speaker-the first time in AIGS history that an alumnus has served as the main speaker for the event.

The main theme of the retreat was, "To become all things to all people: Diaspora identity and ministry in a hybrid world"(1 Corinthians 9:22), and Rev. James Kang-McCann led the student body through a profound journey of spiritual growth and communal grace by biblical meditation, testimony, missionary reflection, prayer and fellowship.

My vision and Missionary Calling Refined at ACTS

Graduation Reflection by Telemnos Gagebo

Born in Southern Ethiopia, I have lived my life with a profound calling toward the Kingdom of God and His mission. For many years, I served in local ministries through evangelism, discipleship, and church leadership. **However, as my ministry progressed, I felt an increasing need for deeper theological reflection and missiological preparation. In the midst of this seeking, by God's guidance, I entered ACTS University in March 2023.**

My time at ACTS has been a definitive turning point in both my life and ministry. Within a campus environment where the dedication of professors, a mission-centered curriculum, **a diverse international student community, and a vibrant spirituality of prayer all coexist, I came to a deep realization: theology is not merely an academic discipline, but a living tool for participating in God's redemptive work.** In particular, the emphasis on Missio Dei (the Mission of God) at ACTS has reshaped my theological horizons and missional perspective. The Great Commission in Matthew 28:18-20 is no longer a verse understood only by the mind, but a practical vision that drives my life.

The education at ACTS has also clarified my specific calling. I have been convinced that my mission is to reach unreached regions and marginalized communities, and to raise the next generation of Ethiopian youth for God's mission. As a result, I have established a ministry vision titled "Rising or Awake Ethiopian Youths for Mission," which is currently unfolding centered around the Horn of Africa.

This vision is built upon three core pillars: training pastors, leaders, and missionaries; evangelism and missionary sending; and church planting and discipleship. Through evangelism efforts in Southern Ethiopia and Northern Kenya, I have witnessed the grace of many souls accepting Jesus Christ, while simultaneously realizing the urgent necessity of church planting and consistent discipleship.

Furthermore, at ACTS, I developed an understanding of holistic mission. I learned that the Gospel is not limited to the salvation of souls but is a power that transforms every dimension of life. Consequently, my vision now encompasses not only evangelism and leadership training but also a stewardship mission to care for God's creation. I believe this is a missional practice that reflects God's heart for both humanity and all of His creation.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the leadership, faculty, and staff of ACTS, as well as to all my fellow students. I pray that God will continue to use ACTS to raise precious workers for world missions.

In conclusion, my studies at ACTS have brought my mission and vision into clearer focus. Here, I have deeply realized that theology is not mere knowledge, but a life lived in participation with God's mission. With this refined vision, I intend to move forward, responding faithfully to God's calling for Ethiopia and the Horn of Africa.

- February 2026 Master of Divinity (M.Div.) Graduate
Telemnos Gagebo, Ethiopia

A Beautiful Harvest of Love: Wedding of an AIGS Student Couple

A beautiful fruit of the AIGS missionary community has blossomed. A Korean student and a Philippine student, who were pursuing different degree programs, met within the AIGS community. After sharing a common vision and mission for world evangelism, their relationship grew into love, leading to their marriage last fall.

Through their journey of studying and growing in faith together, the couple experienced the grace of becoming one in God despite their multicultural backgrounds. Although they come from distinct nationalities, their shared dedication to the mission field and a life of worship allowed them to cultivate deep mutual understanding and respect.

The wedding ceremony was held humbly yet gracefully at the ACTS University auditorium. President Jung Hong-yeol officiated the ceremony, blessing the couple's future. In his message, President Jung stated, "The life of two people becoming one to live for the Kingdom of God is, in itself, a testament to the Gospel."

Meanwhile, the parents of the couple—the Korean family currently serving as missionaries in Egypt and the Philippine family serving in ministry back home—were unable to attend in person due to their ministry schedules. However, the students and all attendees present celebrated with as much joy as a biological family, sincerely congratulating the couple on their new beginning. This wedding held a significance beyond a simple union. It was a living testimony of a community becoming one in Christ, transcending borders and cultures—a moment marking the birth of lifelong partners in love and mission.

David Hirome: Publishing in World-Class Missiological Journals

As I conclude my six-year doctoral journey and prepare for graduation, I offer my deepest joy and gratitude to God, ACTS University, and the Korean churches that have supported me. Only God knows the beginning from the end, and I confess that it is solely by His grace that I have been able to complete my studies in South Korea.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heartfelt thanks to ACTS University for providing the generous scholarship that made this journey possible; without it, even starting a doctoral program in Korea would have been a daunting challenge.

Furthermore, I extend my sincere appreciation to the professors, staff, and all the support personnel serving in our dormitories, cafeteria, and worship spaces. To my fellow students in the AIGS community: thank you for being a community that reflects the image of Christ despite our cultural backgrounds.

Personally, I have experienced immense growth socially, spiritually, and academically. I have learned to build deep fellowships with friends from various countries and cultures. Serving as the Treasurer of the AIGS Student Council in 2023 was a particularly meaningful opportunity to give back to ACTS University while gaining invaluable experience in multicultural leadership. Living away from my home country for six years has deepened my dependence on Christ and taught me to see the diverse ways He works in the lives of different people.

Academically, I am profoundly grateful to my professors for their dedicated guidance in refining my scholarly writing. I still vividly remember my very first class with Professor Matthew Gunn. Professor Daniel Kim kindly guided me through my first academic publication, and Professor Myung-Suk Lee provided me with academic exposure through KIAMS and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conferences, laying the foundation for writing for international journals. Most notably, Professor Han-Sung Kim mentored me through to the end, enabling me to publish articles in three major international missiological journals. I am certain that these experiences would never have been possible had I remained in Uganda; for this, I am truly grateful to ACTS and the Korean churches.

Lastly, I want to thank my wife, Esther, an alumna who studied at ACTS before me. She has been my unwavering support and companion throughout this six-year journey. I thank God for the grace He has shown through all these people, and I humbly ask for your continued prayers that God may use me most effectively in the mission field.

International Journal Publications

1. **Missi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The Title: "African Missionaries in the US"
2.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 (IBMR)
The Title: "African Pastors' Virtual Ministry from South Korea"
3. **Transformation:** An International Journal of Holistic Mission Studies
The Title: "The Moratorium Debate in the Anglican Church of Uganda"
(Co-authored with Prof. Han-Sung Kim as the second author)

February 2026 Graduate of the Combined M.A. & Ph.D. Program
(Intercultural Studies) **David Hirome, Uganda**

함께하는 학교법인이사 목회자 소개

- 이장호 목사(이사장) 높은뜻광성교회
- 최병락 목사(이사) 강남중앙침례교회
- 박노훈 목사(이사) 신촌성결교회
- 이건호 목사(이사) 순복음대구교회
- 이재훈 목사(이사) 은누리교회
- 황성은 목사(이사) 창동영광교회

- 김경진 목사(이사) 소망교회
- 김운성 목사(이사) 영락교회
- 박장혁 목사(이사) 드림교회
- 이인호 목사(이사) 더사랑의교회
- 이기용 목사(이사) 신길교회
- 최원준 목사(이사) 안양제일교회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대학교

- 모집 학과
 - 신학과 - 기독교교육과 미디어학과
 - 기독교상담학과 - 사회복지선교학과
- 문의 031-770-7701

아신대학교
입학안내



대학원

- 모집 대학원
 - 일반대학원 - 선교대학원
 - 신학대학원 - 교육대학원
 - 상담대학원 - 다문화교육복지대학원
- 문의 031-770-7794~6

아신대학교 대학원
입학안내



2026학년도 외국인 신입학 특별 모집

종교문화콘텐츠학과 (한국어 및 영어과정)

- 문의 E. admission@acts.ac.kr
T. 031-770-7702

아신대학교
종교문화콘텐츠학과



- 장학금
 - 1학기: 등록금의 100% 면제
 - 2학기: 등록금의 50% 면제
 - 3학기부터 성적에 따라 최대 100% 면제
- 한국어과정
TOPIK 2급이상 (졸업까지 4급 이상)
- 영어과정
TOEFL(iBT) 71, IELTS 5.5 이상